

# 이용섭, 전략과제 대선공약 반영 건의

### 군공항 국가사업화·달빛고속철 조기 착공 광주 미래 발전 20대 중점 사업 협조 요청

광주시가 광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대선공약 및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조정식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김성한 공동위원장 등에게 8대 분야 20개 중점 공약과제를 설명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 대선후보와 선대위에도 대선공약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할 과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국가사업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광주와 인접한 5개 시·군(나주, 화순, 담양, 함평, 장성)을 묶어 인공지능 기반의 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로 조성 ▲공원에 숲 인프라 확보를 위한 광주 아시아 아트스퀘어 조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첨단의료,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AI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 ▲조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

성 ▲호남 에너지 밸리(RE300) 구축 등의 반영 필요성도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과 인 권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반영을 건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

침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 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숙원 과제들을 대선공약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향후 광주시는 대선공약 전략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할 계획이다.

/조기철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8대 분야 20개 중점 공약과제를 설명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김명진, 이재명 특보단 총괄상임부단장 임명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호남대 초빙 교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총괄상임부 단장에 임명됐다.

6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은 정성호 총괄특보단장을 도와 대선후보 특보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전 행정관은 “선대위에 참여해 지지 유보층을 찾아 심심껏 대화하고 빈틈을 찾아 매우는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대선승 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주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 탈당 6년 만에 복당을 앞두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행정관, 대령령직 인수위, 여야정당 등 국정 전반을 경험하고 당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보를 6년 역임하는 등 국회·의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오선우 기자

## 전남선관위, 6월 지선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가 포상금 1,300만 원을 받는다.

6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8회 지방선거 관련 포상금 지급 결정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

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B씨 측근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 후 입후보 예정자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길용현 기자

## 도, 20일 온라인 수출지원시책 설명회

전남도가 오는 20일 오후 2시 ‘2022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제협력관, 수산유통과 공과, 농업기술원 등 전남도 수출지원 관련 3개 부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전남지방우정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

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 전남FTA활용지원센터 등 수출 유관기관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길용현 기자

## 정기 브리핑

## 김회재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 감소”

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의원이 6일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2001년 12월(11월 28일-12월 31일) 소비밀집업종 카드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조 5,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1조 9,391억원)와 비교했을 때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가 숙박·음식점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카드사용액 증가는 언택트 소비가 견인했다.



작년 12월 온라인 카드사용액은 2019년 동기(1조 8,945억원) 대비 50.7% 증가한 2조 8,542억원이었다. 오프라인 카드사용액은 13조 2,154억원으로 2019년 동기(12조 6,834억원) 대비 4.2%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2020년 대비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취약업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완전극복, 소상공인·자영업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새 단장 5·18자유공원 ‘시민 품으로’

### 시설물 정비 통해 역사배움터 재탄생

5·18자유공원이 1년 6개월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우는 공원으로 새 단장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성한지 24년 된 5·18자유공원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비 3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5·18자유공원 전시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개선사업으로는 ▲영상, 벽화 등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한 인물모형 100여 개와 종합안내도, 설명 패널 추가 설치 등 전시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휴게시설 교체, 5·18자유관 옥상 및 강당 방수공사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광주도시공사 앞으로 이전했던 ‘상무대 표석’ 이설 등이 추진됐다.

5·18자유공원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분소로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중추이자, 지역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 시민군 등을 체포해 상무대 영창에 가두고 고문 수사를 했던 곳이다.

1998년 3월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상무대 영창 및 전시 인물모형 등을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음향장비 및 전시시설, 보도블럭 포장 노후, 휴게시설 부식 및 균열, 옥상지붕 누수 등 시설 전반을 시급히 보수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국비 3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자유공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상무대 영창에 투옥되고 고문받은 곳으로 그동안 노후로 인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시민들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시,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오늘부터 신청...최대 6개월까지 임금 50%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 인건비의 50%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공고일(7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건설·운수업 등이며, 지원 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7일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매일이 귀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저명인사 초청 최상급 전문 강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